

한국의례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Ⅱ)
—조선시대 상례복식을 중심으로—

나 수 일

상명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A Semiotic Approach to Korean Ceremonial Dress(Ⅱ)
—Focusing on Mourning Dresses in Chosun Dynasty—

Soo-Im Rha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examine the meaning system of the symbolized codes related with real costume figures of the abstract concept of the style of the mourning ceremonial dress in Chosun Dynasty as a variable cause of communication through non-language method by the structural analysis of coding of the ceremonial dress style and the meaning system of the codes centering on the traditional book of funeral etiquette dealing with funeral ceremony in the period. To achieve this purpose, I have used the symbolic theory of constructive concept by F. de Saussure, cultural notation theory of Roland Barthes & Umberto Eco, and structural style of costumes by Myung-Sook Han.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As Chosun Dynasty was a society in which people considered courtesy so much important and practiced the basic Confucian ideas of the three bonds and five moral disciplines in human relations, the characteristic of funeral rites in Chosun Dynasty consists in expression of the thoughts of moral ethics & relative systems and systems of clan rules, etc which was a langue determining the symbols of mourning ceremony dress because the mourning ceremony dress in the period should have the feature of a langue. The mourning ceremonial dresses in the period had five grades of the consume and the grades were determined to be classified into five levels according to the clan system of the chief mourner with sang, ha bang. And the method of the association of the mourning ceremonial dress codes had the six principles of Chinchin, Jonjon, Myoungboon, Chulip, Changyu, and Jongbok.
2. Regarding the mourning ceremonial costumes in Korean society, the meaning of funeral ceremony was expressed by the signifier and materials of the mourning costumes in the society. During the process of the funeral, the intangible feeling of condolence was the expression of mourning and the tangible mourning ceremonial dress was the signal with the lamentation meaning. Especially, characters and patterns were removed from the mourning ceremonial dresses in spite of their function of symbols and the styles of

본 논문은 2000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costumes were emphasized. Especially the meaning of condolences was symbolized by attachment of some small pieces of cloth on the upper garments. Hemp was mainly emphasized to be the material of the costumes and some different meanings showed according to the quality of the material hemp. The mourning ceremonial dresses were distinguished from ordinary dresses, which were emphasized because they had some symbolic meaning of the mourning.

3. Considering the association of the synthetic relations of the costumes from the viewpoint that the mourning ceremonial dresses w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a system, the symbolization of them were available by sex according to how to combine them and there were no distinction between social classes in the society.

Key words : language, code, symbol, meaning system, synthetic relations.

I. 서론

복식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한 시대, 한 지역의 복식은 특수한 의미를 내포한다. 복식이 처음 사용될 때는 즉 관습화되기 전에는恣意的이나 점차로 사회제도속에서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진 고정된 형태가 되면 관습이 되며 이로서 복식은 기호인 동시에 상징이 된다¹⁾.

이와 같이 복식은 추상적인 개념과 복잡한 사회의 구조를 유사한 복식의 색과 형태로 바꾸어서 표시하여 언어만으로는 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개념과 인간 사회의 구성을 구체적인 시각적 이미지와 연결하는 표현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S. B. Kaiser²⁾, M. L. Rosencranz³⁾ 등은 복식을 하나의 기호로 보았으며 복식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메카니즘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기호학은 인간이 다루는 모든 상징체의 구조와 그것이 체현하는 사상성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연구이다. 기호학의 범위 중에서도 복식은 가장 밀접하고 무의식적인 기호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⁴⁾.

현재 우리나라의 복식현상을 보면 일상복은 복식의 국제화에 의해서 서양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민족복인 한복은 여전히 의례복에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의례복식은 의례적인 특별한 날 의례규정에 의해서 착용되기 때문에 일상복과는 다른 의례적인 형식이 갖추어져야 하며 의식의 내용에 의해 제정된 복식을 착용해야 한다. 의례에서 복식은 단순히 입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의 형식의 매개체로 이용되었으며 따라서 이 매개체에 그 내용을 부과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시였다. 특히 조선시대는 朱子學위주의 유교사상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유교의 통치양식은 “德治主義” 또는 “禮治主義”의 사고로 禮사상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의례복식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통상례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조선시대의 상례복을 조선시대의 상례절차를 다룬 禮書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통상례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조선시대의 상례복을 조선시대의 상례절차를 다룬 禮書를 중심으로

1) 한명숙. “한국복식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2)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New York: Macmillian Publishing Co., 1990).

3) Mary L. Rosencranz. *Clothing Concepts*. (New York: The Macmillian Publishing Co., 1972).

4) Catherine A. Cerny. “Semiotics; A Perspective on Dress and Identity”. University of Rhode Island. *ACPTC Conference Workshop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Dress*, 1989.

Marcia A. Morgado. “Animal Trademark Emblems on Fashion Apparel: A Semiotic Interpretation, Part II. Applied Semiotic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11, 3, Spring, 1993.

이성희. “군복식의 기호학적 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은실. “이명희. “건축적인 의상디자인의 기호학적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25호, 1995, pp.233-248.

한명숙. “복식의 기호체계연구-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을 중심으로-”. 복식문화학회 「복식문화연구」 7권 6호, 1999, pp.857-870.

로 우리 사회 복식기호들의 코드화 및 그 코드들의 의미체계와 전달하는 메시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비언어적 의사전달의 변인으로서 복식의 추상적 개념들이 복식실체와 관련되어 기호화되는 의미체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개념은 F. de Saussure의 구조주의 개념의 기호학 이론과 R. Barthes, Umberto Eco의 문화 기호론 및 한명숙의 복식구조식을 이용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상례절차중 喪服의 喪服을 중심으로 상복에 관한 선행연구⁵⁾에서 정리된 내용을 기호학의 개념에 적용시켜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한 사회에서 문화적 기호로서 존재하는 의례복식을 기호학적 개념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식의 기호학적 체계정립을 위한 일연구로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연구방법으로서의 문화 기호론

Umberto Eco⁶⁾는 기호의 정의를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회적 관습에 입각하여 무엇인가 다른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으면 모두 기호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사대상이 사회적 관습으로서도 문화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한에서 그렇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되는 것, 더욱 그 경우의 해석이 관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문화적, 사회적인 관습성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의 여러 가능한 측면을 기호 현상으로 포착하는 가능성 즉 문화기호론이라는 관점이 비로소 생기게 된다⁷⁾.

문화기호론은 의미작용이나 전달에 관한 모든 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이론적 가능성과 사회적

기능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미작용과 전달이란 어떤 문화적 사상이 그 사회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인지되는 현상을 말하며 그것이 곧 문화기호론의 대상이 되며 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습성을 추구에 나가는 것이 문화기호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⁸⁾.

또한 문화의 모든 측면은 의미작용의 체계에 바탕을 둔 전달현상으로서 연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언어 이외의 모든 문화현상도 언어처럼 의미를 지니고 있고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의미작용과 전달이라는 기능을 발휘하므로 문화는 기호학의 대상으로서 연구될 수 있다고 하였다⁹⁾. 따라서 기호학은 최근에 바르트가 말한 바와 같이 언어처럼 기능하는 사회적 여러 가지 형식 즉 신화, 친족체계, 의식, 의례, 혼인관습 및 토맹체계에 대한 연구로 방향을 잡고 있다.

특히 복식은 그것이 민속의상이거나 제복같은 경우에는 약호성이라기보다는 각 문화권에 있어서의 관습성이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성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복식은 처음 사용될 때에는 자의적이거나 사회제도 속에서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진 고정된 형태가 되면 관습이 된다. 특히 통과 의례에 이용되는 복식은 다른 차원의 시, 공간을 출현시키기 위해 일상복과는 다른 형태이다. 이러한 복식은 습관 혹은 전통으로 정착된 확고해진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고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되므로 기호학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호학의 주요 개념

1) 랑그와 파롤

소쉬르¹⁰⁾는 기호학을 추상적인 언어체계(language)로서의 랑그(langue)측면과 개개인의 발화 행위(speech)로서의 파롤(parole)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5) 김희숙, “조선시대 士家の 상복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조우현,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이선재, “조선시대 유교사상과 의례복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6) Umberto Eco,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6), p.16.

7) 소두영, 「기호학」 (서울:인간사랑, 1993), p.417.

8) 상계서, pp.417-418.

9) 상계서, p.419.

10) Ferdinand de Saussure, 「일반언어학강의」 오원교 역. (서울:형설출판사, 1973) pp.65-70.

논하였다. 이때 랑그는 한 언어의 문법에 해당되는 기본 구조이며 빠롤은 이것을 토대로 실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운용되는 담화 또는 해당되는 실제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문화차원으로 끌어올린 바르트¹¹⁾는 랑그는 사회제도이고 가치들의 체계이며 개인은 그 스스로 그것을 만들 수도 수정할 수도 없고,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집단적인 계약이라고 해석하였다.

반면에 빠롤은 선택과 현실과의 개별적 행동으로 말하는 주체가 개인적 생각을 표현하려고 랑그의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담화(discourse)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랑그는 이러한 개별 메시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 즉 코드(Code)이며, 이것은 빠롤을 조건지우며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강제, 지시, 담화, 이미지, 형식적 기술, 수사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기표와 기의

소쉬르¹²⁾는 기호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며 기호 표현과 기호 내용의 결합체로서 자의성(恣意性)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어떤 대상을 의미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호들이 어떠한 대상을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기호의 내적 관계를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로 구분하였다.

기표란, 기호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로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지각되는 기호의 이미지, 즉 의미의 물질적 운반체로 현실적 차원의 것이다. 기의는 실체의 의미, 즉 사람들이 어떤 기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추상적, 정신적 개념이다. 기표와 기의 관계는 순전히 자의적이어서 그것을 사회와의 약속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¹³⁾.

3) 의미화

외연적 의미(Denotation)는 사전에서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

고 있는 표현의 일차적 내용을 말하며 내포적 의미(Connotation) 즉 2차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부터 파생된 의미이며, 외연적 의미와 같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호의 문자상의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의 주관적 개입에 의해서 그 의미를 확대시키거나 부각시킨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외연적 의미의 저변에 깔린 관습이나 규약, 인간의 주관적 개입에 의해서 해석되는 심층적 의미로 기호들이 사용자의 느낌, 감정, 그들 문화의 가치와 만났을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인 것이다.

4) 계열체와 통합체

계열적 구조는 서로 다른 실체를 가지면서도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는 단위들의 집합, 즉 선택이 일어나는 기호들의 군을 말하며 통합적 관계는 이러한 계열체에서 선택된 단위들이 다른 단위들과 결합되어지는 관계를 말한다¹⁴⁾. 통합체에서 중요한 것은 단위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결합되는 규칙이나 관습이다.

통합적 구조는 계열적으로 선택된 구조들의 결합적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문장의 한 구성 요소가 의미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후에 나타난 다른 구성요소들과 결합되는 관계 즉 각 요소가 어떤 문맥 속에서 서로 일정한 자리에 위치하면서 연쇄를 이루고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5) 코드

코드란 기호를 위한 명료한 사회적 관습들의 체제¹⁵⁾로 기호의 제작과 해독을 위한 원리에 대한 것이다. 코드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며 우리들에게 기표와 기의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연상의 법칙이나 원리가 된다. 즉 기표와 기의의 통합과 이해, 해석은 코드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코드에 의해 사람들은 타인의 외모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

11) Roland. Barthes. *Mythologies*. trans by L. Annette, (New York : Hill and Wang, 1983).

12) Ferdinand de Saussure. 전제서. pp.60-63.

13) Roland. Barthes. *Elements of Semiology*. Trans by A. Lavers and S. Colins, (New York: Hill and Wang, 1980), pp.42-43.

14) 상제서, pp.58-59.

15) Pierre, Guiraud. *Semi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5) p.41.

으며 코드는 문화적으로 제공되는 사고방식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Davis¹⁶⁾는 하나의 코드는 외모가 의미를 전달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복식기호에 있어서 코드는 문화에 의해서 제공된 중요한 패턴, 즉 연상의 법칙을 말하며 일종의 옷을 입는 “의정서”라고 볼 수 있다.

위의 기호학적 개념에 의해서 조선시대의 상례복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喪禮의 절차

상례란 사람이 죽어서 장사지내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세부적으로 논한다면 임종에서 염습, 발인, 치장, 우계, 소, 대상 및 복제까지의 행사절차를 모두 상례라 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1) 初終---小斂

초종은 상례를 위한 준비절차로 유복자가 화려한 복식을 철거하는 평상복 제거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죽음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정을 표시하는 과정이다.

2) 小斂---成服

이 과정은 시신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효자가 차마 부모의 사망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과정으로 완벽한 상복을 갖추지 않으나 상복의 일부가 시작되어 점차 완성되어 가는 단계이다.

3) 成服

성복은 죽은 지 4일만에 남녀 상제들이 관을 마주 보고 五服으로 갈아 입으며 곡을 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는 五服제도에 정해진 바대로 완전한 상복을 갖추어 입으므로써 죽음을 비로소 인정함을 상징한다. 오복제도에 의한 상복은 죽은 자에 대한 비애의 외적 표현이다.

III. 조선시대 상례복식의 기호학적 구조 분석

1. 상례복식의 랑그와 바틀

바르트는 랑그를 사회제도, 의사소통을 위한 집단적 계약이라고 하였다. 이는 복식의 경우에 복식 품목들과 사회제도속에서의 관습, 규범으로서의 복식을 입는 격식이고 바틀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이 실제로 입는 복식을 말한다. 문화는 그 문화의 구성원이 복식을 입고 몸단장을 할 때 지켜야 될 방법을 안내하는 어떤 원리와 도구를 제공하며 코드는 복식 품목과 장식들이 함께 입혀져야 함을 내포하는 규칙을 제공한다.

의사소통을 위한 집단적 계약인 랑그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이 반영되어 형성되는데 조선시대에는 禮를 중시하는 유교사회로 인륜과 사회질서의 諸도구 가운데 특히 인간의 마지막 통과례인 상례를 중히 여겼다. 유교가 국교로 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의례행사의 규범은 유교사상에 바탕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조선시대는 유교사상의 기초항에 모든 예측이 성립되었으며 유교의 근본 이념인 삼강오륜을 실천하는 사회였으므로 禮思想을 강조하는 시대적 배경때문에 상례복 및 의례복에 표현된 유교사상은 의례복식에서의 랑그라고 볼 수 있다. 의례규정은 의례복식의 코드로 복식의 품목과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다.

상례는 사망에 대하여 애도를 표시하는 喪中의례로서의 諸행위를 말하며 喪은 哀의 의미로 죽은 이에 대하여 슬픔으로 통곡한다는 뜻에서도 상례의 전 과정은 哀痛之情을 표현하는 의례행위임을 알 수 있다. 유교의 상례는 고려에 朱子家禮가 전래된 이후 조선조 오백년간에 걸쳐 사대부는 물론 서민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지켜졌다. 이처럼 상례는 조선시대 예교문화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화요소였다.

상례에서 상복은 死者에 대한 服者의 외형적 표현매체로 喪者에 대한 親疎, 遠近관계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등급의 차이가 표시되었던 것으로 혈족체계에 따라 그 등급이 분화되며 그 등급의 차이가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五服제도라 한다. 五服제도는 斬衰, 齊衰, 大功, 小功, 緦麻 등의 5등급으로 이 등급

16) Fred, Davis.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p.8-15.

<표 1> 五服제도

斬衰-----3년-----父
3년-----母(父卒爲母)
1년 杖期----母(父在爲母)
不杖期----祖父母
齊衰-----5월-----曾祖父母
3월-----高祖父母
大功-----9월-----從兄弟姊妹 등
7월-----三殤降服 등
小功-----5월-----從祖父母, 再兄弟姊妹 등
總麻-----3월-----族曾祖父母, 三從兄弟姊妹 등

에 따라 喪期가 정해지며 上·下 傍을 갖고 있는 친족관계로서 조직된 친족망을 형성하고 있다.

五服제도는 <표 1>과 같다.

유교에서는 윤리도덕을 중시하고 고유한 가족제도를 옹호한다. 도덕이란 본래 사교체계를 행동체계로 실시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회내에 조직이 있어야 하므로 가족사회의 宗法에 그 기초를 둔다. 즉 중법이란 사 사망시 長子, 嫡子가 그 가계를 계승하는 자손승계의 한 법칙이다. 그래서 상복이 적용되는 친족단체의 경우 6개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바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親親은 혈연의 親疎에 의한 것으로 상복의 輕重이 설정되는 것을 말한다. 친족의 범위는 儀禮의 喪服편에서 보듯이 자기를 중심으로 父(子포함), 母, 妻의 三面으로 분별되는데 父系親屬, 母系親屬, 妻系親屬, 夫系親屬 등이 그것이다. 둘째, 尊尊은 신분의 高下가 상복착용 輕重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셋째 名分은 직계친족이 아닌 명분상의 관계로 인하여 상복하는 것으로 世母喪, 叔母喪이 이것이다. 世母, 叔母가 期年服인 것은 친족의 명칭으로서 服하기 때문이다¹⁸⁾. 넷째, 出入은 宗族歸屬에 의거하여 상복의 輕重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女在室은 入에

속하고 出嫁者는 出에 속한다. 다섯째, 長幼는 연령에 따른 상복의 기준으로 성인과 미성년의 구별이며 名은 친족관계에 있어서 尊卑의 신분관계를 일컫는 것으로 傍系親屬의 尊者에 대한 服을 長이라 하고 그 卑者에 대한 服을 幼라 한다. 여섯째 從服은 간접관계인의 상복을 말한다.

이러한 상복의 적용원리는 유교의 倫理道德思想의 기초개념으로 父母親愛, 兄弟友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男女有別 등의 관념론이 차별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 조선시대 상례복식에서는 유교관념에 의한 철저한 윤리도덕사상과 친족제도, 종법제도 등이 상복제도를 결정하는 당그로 볼 수 있다.

2. 상례복식의 기표와 기의

복식은 의사 전달을 위해 어떤 시각적 영상이 어떤 개념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외형적 기호를 사용하므로써 시각 영상이라는 감각적 측면과 개념이라는 비감각적, 관념적 측면이 결합되어 있는 기호이다¹⁹⁾. 따라서 복식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보이는 면, 즉 복식디자인 형태, 색상, 재질, 무늬 등 물리적 실체를 복식의 기표라 볼 수 있고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각 디자인의 요소가 담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외연적 의미로써의 기의로 볼 수 있다²⁰⁾.

喪이란 衰의 의미로서 사람의 사망에 대하여 애도를 표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망에 대하여 애도를 표시하는 상중의례로서의 제행위를 상례라고 하는데 상례의 일부분인 상복은 服인이 喪中에 착용하는 일체의 예복으로서 일명 凶服 또는 孝服이라고 한다. 즉 상례는 死別의 애도지정을 상복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상복제도인 오복제도에서 각 단계는 그 의미를 가지는 바 상례에서 사별의 애도지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斬衰에서 斬이라 함은 밑단을 풀어 놓은 것, 즉 꿰매지 않는 것을 말한다. 斬이란 것은 애통이 깊다는

17) 禮記·大傳篇.

18) 禮疑類輯·卷18, 喪變禮.

19) 한명숙, 전계논문, p.57.

20) Susan. B. Kaiser. 전계서. p.226.

의미이며 의복의 밑단을 꿰매지 않은 것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장식하지 않음의 지극함을 의미한다. 또한 상복은 布로써 衰를 만들어 붙여 옷의 명칭을 衰라 함은 衰란 布가 붙어 있음에 인연한 것임을 명명한 것이다.

齊衰는 疎衰裳 齊라고도 하는데 疎에 齊는 緝을 가르키는 것이며 의복의 밑단을 호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 齊는 의복의 제작에 있어 緣을 縫綴하여 정제함을 말한다. 論語, 孟子, 荀子에 나오는 齊衰의 齊의 뜻은 齊戒, 齊日, 齊忌 등에서와 같이 禁忌를 의미하는 것이니 상복의 주술적인 기능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상중의 喪裝이 평상시와 다름을 요하는 주술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말한다.

大功 儀禮의 喪服篇 斬衰章에 大功이란 冠에 六升布를 사용하여 재물에 삼지 않은 것이라 하였으니 잘 다듬고 손질하지 않은 것으로 大功이란 명칭은 布의 바탕의 功으로 인하여 명명된 것이다.

小功이란 儀禮의 大功章의 疏에는 大功에 대한 것으로 다듬는 것이 곱고 세밀하다라고 되어 있다. 釋明에는 小功이란 정밀하고 섬세하게 손질하고 다듬는 것이니 가장 식적계 장한 것이라 하여 小功 역시 布의 질감으로 명칭을 붙인 것이다.

總麻는 總라는 것은 실의 곱기가 비단과 같다고 하여 역시 布의 질감으로 명칭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복제도에서 상복의 디자인 요소가 담고 있는 추상적 개념의 표현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상복의 재료는 주로 오복등급의 어느 경우에도 麻布를 사용하는데 이는 평상복과 구별하여 상복임을 의미하였고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喪中에 오염방지에 적절한 소재로 선택되었으며 조성의 정도에 따라 喪의 經重을 의미표현하였다. 즉 다섯가지 상복의 구분은 삼베의 질에 기준을 두었다. 斬衰服은 석새생포로 齊衰服은 석새베보다 약간 덜 성긴 생베로 大功은 삶아서 마전을 한 거친 삼베로 小功은 삶아서 마전을 한 고운 삼베로, 總麻服은 가는 삼베로 지었다²²⁾. 조선시대 상복제도는 喪이 重할수록 手功을 덜 들여 해 입었으며 입는 기간을 길게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重喪일수록 조대한 服地와 조약한 服色을 사용했는데 이는 服者의 불길을 상징하는 주술종교적 의미와 비애의 표현이었다.

평상복과의 구별을 두려는 의미가 있고 또한 장기간 돌보지 않고 착용하는 것이므로 오염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슬기는 외향처리하였다.

喪衣에서는 평상복과 다르게 辟領, 加領, 衰, 후면에 負版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이 布片을 부착하는 이유는 효자가 부모의 상을 당하여 슬픔이 곳곳에 있음을 표현한 것이며 특히 胸部에 부착된 衰는 비애를 억누르는 衰가 심장에 있음을 의미하며 喪服이라는 상복의 총칭으로 대변하고 있다. 또한 상복과 함께 사용된 장신구류도 만든 재료를 일상복과 차별화함으로써 상복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복은 吉服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쓰여졌으며 또 조선시대의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음양오행사상, 무속 등이 상복의 전반에 영향을 주어 의미표현된 것이다.

기외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된다. 상례복식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의 상례의 의미가 상례복식의 기표인 형태, 소재의 질 및 봉제법, 색상 등의 요소에 표현되고 있으며 상례복을 死者에 대한 哀悼之情을 표시하는 기호로 본다면 이러한 의미들은 기외로 볼 수 있겠다. 즉 상례절차중 무형의 애도지정은 의미인 기외이고 유형의 상복은 의미를 담은 형식인 기표에 해당한다. 상례에는 본질과 형식의 양면이 있는데 본질은 인간이 공통으로 감지하는 미묘한 심리적 상태로서의 인간의 차원이요 형식은 외적으로 표출되어 실현되는 道로서의 예법과 제도의 차원이다. 荀子의 이러한 禮論을 통하여 상례는 死別의 哀悼之情을 상복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기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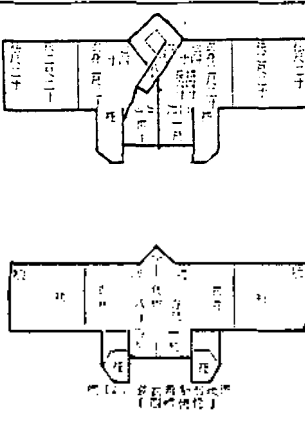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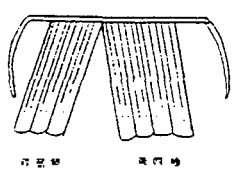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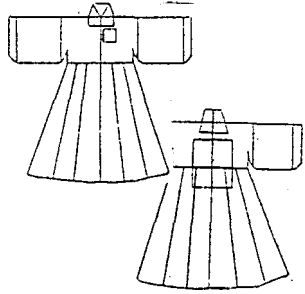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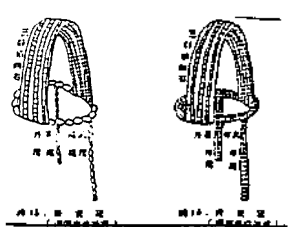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喪服의 기표는 결국 유교를 국교로 하여 삼강오륜을 실천하고 禮사상을 강조하는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조선시대의 喪禮服을 기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남,녀 상복의 형태인 기표와 의미인 기외를 다음의 <표 2>와 <표 3>에

21) 儀禮. 喪服傳.

22) 金斗憲. 「五服제도의 연구」(農壇學報卷五, 1936), p.187.

23)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서울:민음사, 1992), p.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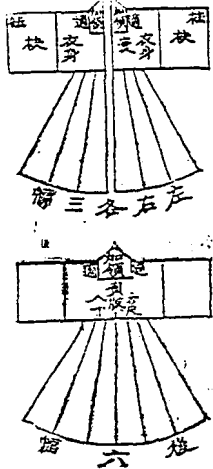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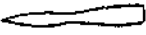


<표 2> 조선시대 남자 상복기호의 기표와 기의

분류	기 표	형태소	기 의	
			외연적 의미	내연적 의미
衰衣		辟領 加領 袷 負版 袂 帶下尺 袷 衣繫	어깨-목이 닿는 부분에 붙여진 布片 깃 加領과 圖中을 잇는 역할 눈물 받이 衰衣의 등부분 깃아래 부착된 布片 소매 衣身아래 부착된 布 1尺 양쪽겨드랑이 아래 부착된 布 옆에 다는 옷끈	衰의 경중을 표시하며 효자가 부모상을 당하여 경황이 없음을 나타냄. 상복등급의 경중 표시 효자가 부모상을 당하여 비애를 억누르는 衰가 심장에 있음. 효자가 지극한 비애를 등에 짊어진 것을 의미
衰裳		앞 3폭 뒤 4폭	백관복, 朝祭服의 裳과 동일형태	양, 음의 음양오행사상
中衣			衰服아래에 받쳐 입는 일종의 속옷역할을 함	
喪冠				유교를 국교로 하여 삼강오륜을 실천하고 예사상을 강조하는 조선시대의 상례복

<표 2> 계속

분류	기 표	형태소	의	
			외연적 의미	내연적 의미
頭巾			두건은 관을 받쳐서 쓰는 布巾	
首經			冠위에 덧쓰는 테의 일종. 남자는 頭巾, 喪冠과 함께 쓰고 여자는 首經만 쓴다.	
腰經			絞帶 위에 겹쳐서 두르는 것	服者の 비애 효사상
絞帶			혁대와 같은 모양으로 한 쪽 머리를 고리모양으로 만듦	신분, 지위 초월한 상복착용으로 죽음을 통하여 삶을 誠敬하는 가치관
行總				
喪杖		형태: 마디 색: 검정색 재료: 대나무	지팡이: 상례과정중 신체 쇠약시 이용	대나무를 이용하는 것은 子가 父를 위한 비애의 심정이 마디마디에 응어리져 있으며 내외 어디에나 고통이 있고 四時가 지나도 子가 父를 위함은 불변
喪履		재료: 草, 麻	상중에 신는 신, 짚신, 풀겹질을 외향하여 만듦	평상복과 구분

<표 3> 조선시대 여자 상복기호의 기표와 기의

분류	기 표	형태소	기 의	
			외연적 의미	내연적 의미
大袖 長褙	 <p>圖15. 大袖長褙圖 (西道文苑圖式)</p>		<p>極鹿生布를 쓰며 밑단을 봉제하지 않고 남자의 쇄의와 구조는 같으나 상하가 연결되어 쇄의와 12폭의 치마를 이어붙인 점이 다르다.</p>	<p>유교를 국교로 하여 삼강오륜을 실천하고 예사상을 강조하는 조선시대의 상례복</p>
箭筈	 <p>圖16. 箭筈 (家禮通考)</p>	<p>재료: 대나무 개암나무</p>	<p>재료를 달리 하여 평상시 비녀와 구분</p>	
髮			<p>쪽머리</p>	<p>상중에 하는 쪽머리, 복상투머리</p>
布總			<p>모발을 本을 묶고 다시 末을 묶는 것</p>	
蓋頭	<p>布總 (家禮通考圖說)</p>  <p>家禮通考圖說</p>	<p>재료: 瑯細布</p>	<p>3폭을 붙여 만든 머리덮개로 두손으로 잡아 얼굴을 가림 冠위에 덧쓰는 테의 일종</p>	<p>신분, 지위를 초월한 상복 착용으로 죽음을 통하여 삶을 誠敬하는 가치관의 일종</p>

서 분석하여 정리해 보았다.

3. 혼례복식의 계열체와 통합체

한명숙은 복식의 구조분석에서 복식의 품목을 계열관계로, 복식을 조합하여 입는 방법을 통합관계로 논의하였다. 즉 복식이라는 커다란 계열체가 겹옷의 계열체, 속옷의 계열체, 모자 계열체, 양말 계열체 등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통합체란 위의 계열체에서 선택한 여러 다른 기호들의 조합으로 다른 모습의 복식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복식 통합체는 특정한 방식으로 기호들을 선택하여 조합하는데 이 특정한 방식이란 바로 관습적 원리들의 미한다.

조선시대 상례복에서 계열체는 각 복식품목으로 상의류, 하의류, 외의류, 모자류, 신발류 및 장신류로 그 구성요소의 집합체이다. 이들 계열체중에서 각기 다른 복식계열체를 조합하여 입음으로써 조선시대의 상례복식을 갖추게 되며 이는 통합적 구조를 구성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계층, 성별 등이 구분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조선시대 상례복 구조식

$$= \left(\frac{U}{D} \times (u + d) \right) + AC.H.FW$$

조선시대 상례복식의 통합체는

남자상복 =

$$\left(\frac{\text{喪衣}}{\text{喪裳}} \times \text{中衣} \right) + \text{喪冠, 頭巾, 首經,}$$

喪杖, 行纏, 腰經, 絞帶, 喪履

여자상복 =

$$\left(\frac{\text{大袖}}{\text{長裙}} \right) + \text{箭筈, 髮, 布總, 蓋頭, 首經,}$$

喪杖, 腰經, 絞帶, 喪履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상례복식은 계층에 따른 구별은 없었으며 특이한 점은 평상복에서의 외의류가 없었으며 남녀의 복식에 차이가 있었다. 여성복에서는 남성복과 달리 상,하의가 붙은 원피스의 형식이었으며 머리장식에서 남자는 喪冠, 頭巾을 여자

는 箭筈, 髮, 布總, 蓋頭 등으로 구분되었다.

<표 4> 조선시대 상례복의 계열체

계열체	분류	날말
상의 UD	겹옷(U)	喪衣, 大袖(여)
	속옷(u)	喪裳
하의 DD	겹옷(D)	中衣, 長裙(여)
	속옷(d)	喪裳
모자류 H		喪冠 + 頭巾, 蓋頭(여) 首經, 冠, 布總(여)
신발류 FW		喪履
장신구류 AC		喪杖, 行纏, 髮, 箭筈, (여) 腰經 + 絞帶

IV. 결 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에는 禮를 중시하는 유교사회로 유교의 근본 이념인 삼강오륜을 실천하는 사회였으므로 조선시대의 상례는 랑그의 측면이 강조된 복식유형으로 철저한 윤리도덕상과 친족제도, 종법제도 등이 상복기호를 결정하는 랑그로 기호화되었다.

상복은 五服제도로 上·下 傍을 갖고 있는 喪者에 대한 혈족체계에 따라 그 등급이 분화되며 그 등급의 차이가 5등급으로 구분되어 결정되었다.

또한 상복코드의 조합방법은 親親, 存存, 名分, 出入, 長幼 從服 등의 6개원칙이 있다.

2. 상례복식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의 상례의 의미가 상례복식의 기표인 형태, 재질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상례절차중 무형의 애도지정은 기의이고 유형의 상복은 의미를 담은 기표에 해당한다. 특히 상례복식은 기표중에서도 문양은 제거되었고 의복의 형태가 강조되었는 바, 특히 布片을 상의 곳곳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애도지정의 의미를 기호화하였다.

또 의복의 재료인 麻소제를 강조하였으며 그 精粗生熟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였다. 특히상복은 그 제작방법에 의해 평상복과 구분하였고 상복이라는 哀悼之情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강조하고 있었다.

3. 조선시대 상례복식 품목분류를 계열체로 보고 통합적 관계로 조합하면 상례복식이라는 의미표현을 하는 조합방법에 따라 성별로 기호화가 가능하였으며 계층에 따른 차별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간적,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식기호들의 코드화가 가능하며 연구결과들을 비교분석하면 복식이 기호화되는 보편적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색인어 : 랑그, 코드, 상징, 의미체계, 통합적 관계)

참고문헌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 민음사, 1994.
-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9.
-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서울 : 민음사, 1992.
- 김희숙. 「조선시대 士家의 상복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나수임. 「한국의례복식의 기호학적 분석(1) -조선시대 혼례복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4권 3호 1996.
- 석주선. 「한국 복식사」. 서울, 1971.
- 이선재. 「조선시대 유교사상과 의례복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조우현.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소두영. 「기호학」. 서울 : 인간사랑, 1993.
- 한명숙. 「한국 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 Eco Umberto, 서우석 역. 「기호학 이론」. 서울 : 문학과 지성 1993.
- Barthes, Roland, 한명숙 역. 「유행과 문자 의상 체계」. 서울 : 경춘사, 1994.
- 構川公子著, 이민경, 한명숙역. 「服飾表現의 位相」. 서울 : 경춘사, 1996.
- Gennep A.V., 전경수역. 「通過儀禮」. 서울:을유문화사, 1985.
- Bogatyrev Petr. *Costume as a Sign. From the Function of Folk Costume in Moravian Solvákia*, mouton, The Hague and Paris, 1971.
- Barthes, Roland. *Mythologies*. trans by L. Annette, New York : Hill and Wang, 1983.
- Barthes, Roland. *Elements of Semiology*. trans by A. Lavers and S. Colims, New York : Hill and Wang, 1980.
- Cemy Catherine A. "Semiotics ; A Perspective on Dress and Identity." University of Rhode Island ACPTC Conference Workshop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Dress, 1989.
- Davis Fred.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De Saussure Ferdinand. 「일반 언어학 강의」. 오원교 역, 서울 : 형설출판사, 1973.
- Gurel Lesile M. & Beeson, Marianne S. *Dimension of Dress and Adornment : A Book of Reading*.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1977.
- Kaiser, Susan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90.
- Morgado, Marcia A. "Animal Trademark Emblems on Fashion Apparel" : A Semiotic Interpretation, Part II, Applied Semiotic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Volume 11, 3, Spring, 1993.